

현장과 시각

성남 농심에 귀 기울여라



송기동 사회2부 차장

지난 19일 전국농민회 소속 광주·전남지역 농민 1천여 명이 전남도청 앞에서 '식량주권 쟁취를 위한 버 촛불거부 투쟁 결의대회'를 갖고 삽밭 향의와 농기계 화형식을 가졌다.

이들은 또 농기계 등으로 미국저리장(RPC)을 봉쇄하고 버 아작시위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은 농민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어느 해보다 면세유,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생산비가 크게 올라 벼랑 끝에 내몰렸기 때문이다.

전국농민회가 발표한 '2008 쌀 생산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생산비는 10a(300평) 당 111만3천485원으로 지난해 96만6천868원보다 11.5%가 상승할 전망이다. 또 올해 정곡 80kg 한 가마당 생산비도 19만1천436원으로 지난해 보다 2만4천185원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쌀 농사 10a당 소득은 2005년 54만6천원에서 지난해 49만 원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벼농사 소득은 해마다 뒷걸음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순 도곡면 들녘에서 만난 조모(55)씨는 "(농사가) 잘돼도 걱정, 안돼도 걱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유난히 잦았던 비와 태풍 '나리'에 수확을 앞둔 벼가 모조리 쓰러져 썩어 쓰러지는 수발아(穗發芽)까지 생겼던 것에 비하면 올해는 50%가량 늘어난 '대풍' 수준이다.

다음주 수확을 앞두고 있는 노랑계 익은 벼를 보면서 조씨의 마음은 답답하다. 당장 콤바인 임대료가 지난해 660만(200평) 당 3만5천원에서 올해는 4만5천원으로 올랐고, 인건비도 지난해 3만원에서 올해는 3만5천원~4만원으로 오른 데다가 그나마 인력을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태풍이나 폭우 등이 없었고 병충해가 발생하지 않아 농약은 거의 쓰지 않았지만 비료와 면세유 등 농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은 영농비의 급등으로 이어졌다.

그 어느때보다 생산비가 많이 든 만큼 올해 공공 비축미나 농협 수매가가 올라야 하지만 현실은 농민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기업 프랜들러' 정책을 표방하는 MB정부 들어 농업정책은 답보상태다.

물가안정을 위해 농산물 가격 인상을 통제하는 조치가 농사는 아닐 것이다. 오죽하면 여당 내에서조차 "매주 당 최고위원회의 열리지만 한 분도 농업을 걱정하지 않아 안타깝다"는 탄식이 나왔을까.

이번에 농민단체에서 향후 5개월간 쌀 출하거부 운동을 벌이기로 함에 따라 어느 해보다 과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쌀 목표가격 인상, 면세유량 확대, 공공 비축량 확대 등 절박한 농민의 요구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기대해 본다. /song@kwangju.co.kr

美 구제금융 법안 잠정 합의

정부-의회 "문서화만 남아...29일 처리 가능"

미국 금융위기의 타개를 위한 7천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제정안에 대해 미 정부와 의회가 잠정 합의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27일 자정이 지난 직후 구제금융안이 아직 완전히 명문화되지 못했다는 전제를 달며 이같이 밝혔다. 의회와의 합의 과정에 참석했던 헨리 풀슨 미국 재무장관도 "마무리 지으려면 아직 할 일이 남았지만 다 됐다"고 생각했다.

펠로시 의장은 "큰 진전을 이뤄냈다"며 "공식적으로 합의하고 (구제금융안 처리를) 끝내기 위해 (합의 내용을) 문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와의 합의에 상원 공화당 대

표로 참석한 그레그 저드 의원은 "모든 것을 이뤄냈다"며 구제금융안에 대해 28일 하원의 표결이 이뤄지면 상원에서는 29일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상원의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는 '타개'라고 부를 만한 내용이 있었다며 28일 오후(현지시간) 늦게 공식 합의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합의에 참석한 민주당의 켈트 콘래드 상원의원에 따르면 이번 합의 과정에서 정부가 구제금융 비용은 제시했던 총 7천억 달러 중 3천500억 달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요청하는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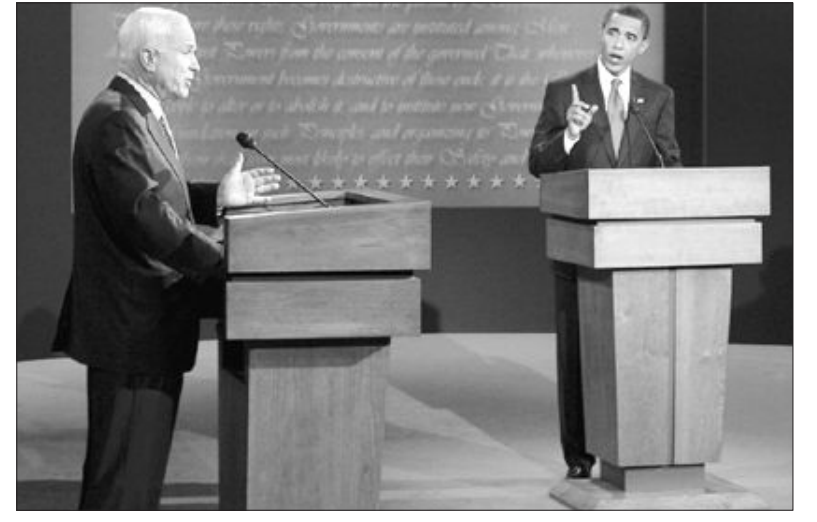
하지만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는 의회가 집행된 구제금융의 효과를 지켜보면서 추가로 승인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대

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단서를 남겼다.

또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번 합의에 따라 금융위기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기관 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채권을 담보로 삼은 증권사의 인수자들도 구제금융 대상에 포함됐다.

구제금융 혜택을 입는 금융기관의 경영진에 대해 퇴직 보너스에 상한선을 둔다는 내용과, 정부가 구제금융 대상 금융기관의 주식 인수권을 보유한다는 조항도 합의 내용에 담겼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당초 정부의 구제금융안이 제시된 뒤 공화당 일각의 반대 등으로 인해 합의 과정을 거치게 됐지만 결국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이번 금융위기로 가치가 급락한 모기지 담보부 증권을 인수한다는 기본 개념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미국 대선 사상 초유의 흑백대결을 펼치고 있는 공화당의 존 매케인,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대선후보가 지난 26일 저녁(현지시간) 미시시피주에서 첫 TV 토론을 갖고 금융위기를 비롯해 북한 및 이란 핵,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경제·외교현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연합뉴스

첫 TV 토론, 오바마가 이겼다

여론조사 51% 호평...38% 매케인에 압승

'1차전은 오바마가 이겼다' 미 대선후보 간의 첫 TV 토론에서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가 공화당 존 매케인 후보보다 더 잘했다는 유권자들의 평가가 나왔다.

CNN이 지난 26일 미시시피주 옥스퍼드에서 열린 TV 토론 후 성인남녀 524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오차범위 ±4.5% 포인트)에서 오바마가 잘했다는 응답은 51%, 매케인이 잘했다는 응답은 38%로 나타났다.

특히 오바마는 매케인보다 더 지적이고 호감이 가며 사람들의 문제를 잘 알고 있다는 인상을 줬고, 근소한 차이로 더 진실되고 강력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심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매케인이 상대 공격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483명의 부동층을 상대로 한 CBS의 온라인 여론조사(오차범위 ±4%

포인트)에서도 오바마가 토론에서 승리했다는 응답은 39%로 매케인(24%)보다 많았다. 무승부라는 응답은 37%였다.

특히 오바마가 유권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더 잘 아는 것 같다는 응답은 매케인보다 2배 많았다.

'대통령이 될 준비가 돼 있는가'라는 질문에선 매케인은 78%로 TV토론 전과 차이가 없었지만 오바마는 이점보다 16%나 급등한 60%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1차 토론은 오바마의 승리라는 분석이 가능해 보인다. 무엇보다 격정적이고 공세 위주의 매케인과 차분하고 안정된 오바마 간의 토론 스타일이 대비되면서 승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AP 통신은 27일 매케인이 현란한 제스처를 동원한 '행동' 중심이었다면 오바마는 사려 깊고 신중한 자세였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中, 러·美 이어 세계 3번째 우주유영 성공

중국이 러시아와 미국에 이어 자체 기술로는 세계 3번째로 우주유영에 성공한 국가가 됐다.

중국의 세번째 유인우주선 '선저우(神舟) 7호'가 27일 오후 자국 우주탐험 사상 처음으로 우주유영에 성공했다.

선저우 7호 선장인 자이저강은 우주선에서 90분에 한 바퀴씩 지구를 29바퀴 돈 뒤인 이날 오후 4시43분(이하 중국시각)께 특수 제작된 우주복을 입고 우주선에서 내려 17분 정도 우주유영을 진행했다.

자이저강은 오후 4시43분 왼손을 먼저 뻗어 우주선을 빠져나온 뒤에 각종 장비를 회수하면서 임무 수행에 이상이 없다고 보고하며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흔들었다. 이 장면은 중국 관영 중앙(CC)TV를 통해 중국 전역에 생중계됐다.

그가 우주유영을 하는 동안 류보밍은 러시아제 올란 우주복을 입고 캐노피를에서 각종 기술자원을 했고 우주인 징하이핑은 귀환모듈에 남아 맡은 임무를 수행했다.

중국은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2017년까지 달에 우주



우주선 밖을 나오면서 중국 국기를 흔들고있는 중국 우주인 자이저강. /연합뉴스

인을 보내고 2020년 독자적인 우주정거장을 건설한다는 목표를 실현하는 데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우주유영에 성공한 중국 우주선 '선저우(神舟) 7호'는 28일 오후 6시8분간의 비행을 마치고 귀환했다. /연합뉴스

한·미 FTA 美의회 비준 내년 3월초까지 힘들듯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국 의회 통과가 내년 3월 초까지 힘들어졌다.

정부는 당초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뒤 열릴 미 의회가 이른바 '레임덕 세션(Lame duck session·정권교체전 열리는 마지막 의회)'에서 한미 FTA 문제를 다룰 것으로 기대했으나 미국 의회내 예산반안 통과를 둘러싼 상황이 달라지면서 이런 전망이 먹혀들지 않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28일 외교통상부 등 정부 관계당국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지난 24일(현지시간) 6천300억 달러 규모의 정부 임시지출안을 통과시켰다.

이 임시지출안은 내년 3월6일까지 시행되는 준예산 성격으로, 임시지출안의 통과에 이 때까지는 의회가 열리더라도 예산이나 법안 심사를 위한 본격적 회의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시나리오는 회계연도 시작(미국의 경우 10월1일)까지 예산안이 완전히 통과되지 않는 것이 '관례'에 가까운 미국 정치 특성상 11월 초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부터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예산문제를 다룰 '레임덕 세션'이 열린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미 의회가 내년 3월6일까지 정부의 지출안을 승인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순위가 밀리는 한미 FTA 등을 해결하기 위한 본격적 회의를 열 가능성은 희박해졌다는 게 정부 측의 분석이다. /연합뉴스

힐 차관보 내달 1일 방북 양보안 제시 여부 촉각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의 3번째 방북이 이뤄져 방북 결과가 주목된다.

힐 차관보의 방북 시점은 북한이 재처리시설을 재가동하겠다고 예고한 날짜와 겹칠 것으로 보여 그의 방북이 북한의 추가 긴장조나, 협상으로의 복귀나를 가능하게 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24일 일주일 내에 재처리 시설에 핵물질을 주입하겠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통보한 바 있어 다음달 1일이 '디데이'(D-day)가 될 수 있다. 힐 차관보는 오는 30일 한국에 도착하며 이르면 다음 달 1일 방북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그동안 검증체계 구축을 위한 미국과의 협상에 미온적이었던 태도를 바꿔 힐 차관보의 방북을 전격 수용했다는 점에서 일부에서는 미국이 뉴욕채널을 통해 북한이 관심을 가질만한 양보안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연합뉴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주)옥션코리아. Includes contact info, branch locations, and a table of property listings with columns for location, area, price, and agent.

Advertisement for Benesse shoes. Features a large image of a blue shoe and text asking '당신의 발은 건강하십니까?' (Is your foot healthy?). Includes a list of benefit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Benesse Kwangju Branch.